

# “동화는 어린 시절의 나로 시간 여행”

2023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한유진 '맘대로 피구 규칙' 펴내



“동화는 제게 ‘어린 시절의 나’로 돌아가게 해 주는 소중한 매개체입니다. 좋은 동화를 읽을 때는 ‘만약 나라면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공감하는 법을 배우죠. 또 작품을 쓸 때는 어린 나로 돌아가 행복하거나 힘들었던 순간들을 되돌아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지금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왔는지 생각하고 앞으로의 삶을 꾸릴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한유진 동화작가는 지난 2023년 광주일보 신춘문에 동화 부문에 당선돼 문단에 나왔다. 당시 한동화작가는 당선소감에서 “여러 코스를 걸었지만 아직은 익숙하지 않다”며 “그렇다고 오르막이 나올까 봐 두렵지도 않다. 동화 쓰는 일도 이와 비슷한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작가가 신춘문에 당선 1년 여만에 장편동화 ‘맘대로 피구 규칙’ (한솔수북)을 펴내고 독자들 곁으로 다가왔다. 작가는 그동안 동화 창작도 여러 군데서 받아 작품을 쓰는 것은 물론 신춘문에 당선작 ‘어린 손님’을 포함한 동화집 출간도 앞둔 만큼 분주하게 보냈다.

이번 동화는 서로 부딪히는 관계 속에서 타인을 알아 가고 그러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는 이야기다. 작가는 “경쟁사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좀 더 즐거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썼다”며 “물론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쟁도 필요하지만 선의의 경쟁이 아닌 부분까지는 경쟁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누구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도전과 선택이 필요하다”며 “그런 과정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함께 성장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작품 뒷부분에 보면 주인공이 피구 경기를 하면서 (‘앗! 해미와 비교하고 이기려던 건 누구 탓도 아니야. 내 마음이 한 일이었어. 의식하지 않으니 이렇게 마음이 편한걸.’) 라면서 깨닫게 되는 장면이 있다. 한 작가는 이 부분이 동화의 주제라면 주제일 것 같다고 했다.

경쟁사회 살고 있는 아이들 배려하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 즐거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아동문학사조 신인문학상 수상

동화 속 주인공은 상대방을 의식하는 시선을 내려놓고서야 마음이 가벼워진다. 경쟁에서 이기려는 마음보다 중요한 건 당당한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

이와 연장선에서 동화를 쓰기 위서는 아이들 고민을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어른의 시각이 아닌 아이의 눈과 귀로 보고 들으면서 함께 고민할 때” 비로소 작품의 윤곽이 떠오르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훈을 주기 위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독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쓰고 싶어요. 어린이 독자가 자신들의 이야기에서 재미를 느끼고, 더 나아가 용기를 얻어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는 평소 작품의 소재를 아이들에게서 찾는다. 자신의 아이들의 이야기이거나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가 모티브가 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마다 생각과 그에 따른 선택이 다르니 어떤 주인공을 만드느냐에 따라”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독자들은 자신과 다른 주인공을 보면서 재미를 느끼기 때문이다.

현재 한 작가는 창작을 하는 틈틈이 학교나 도서관에서 ‘작가와 만남’을 갖거나 ‘그림책 인형극’으로 환경 강연도 한다. 강연을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창작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낯선 곳에 가다 보면 작품 모티브를 얻기도 하고 처음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인물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는다.

그럼에도 동화가 안 써질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물음에 그는 “글벗들과 어울리며 작품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충전한다”고 했다. 세상사는 이야기도 나누고 미술관, 음악회, 연극, 영화 등 문화생활을 즐



한유진 동화작가

기면서 마음을 채우기도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작가에게는 좋은 소식도 있었다. 문예위 ‘문학창작산실-발표지원’에 장편동화 부문이 선정됐다.

“동화에 나오는 아이들 마음을 함께 고민하고 공감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점차 행복해질 거라 믿어요.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의 미래는 분명 밝을 테니까요.”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아따! 내 입담이 더 세당께

예락 재담 음악극 ‘팔도 유람기’ 28일 광산문화예회관 무료 공연

전국을 떠도는 두 보부상이 광주에서 우연히 만나 전국 팔도를 유람하며 수집한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 나간다. 각 지역의 숨결이 깃든 민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옛 노래극’이 펼쳐진다.

예락(대표 김보람)이 재담 음악극 ‘팔도 유람기’를 오는 28일 오후 7시 광산문화예회관에서 선보인다. 해금, 가야금 등 전통악기와 플루트, 건반과 같은 서양악기, 무용 등 가무악적 극적 요소가 어우러진 총체극이다.

공연은 팔도를 누비는 두 보부상(함승우·정성현 분)이 광주에 당도하는 ‘우리는 보부상!’ 대목으로 막을 연다. 설장구 협주곡 ‘소나기’와 ‘흥타령’이 울려 퍼질 예정이다. 두 사람이 진귀한 물건이 넘쳐나는 한양의 남대문 시장으로 향하는 ‘날리야’ 대목은 경기민요 ‘태평한 노래’로 채워진다.

기이한 물건을 얻은 보부상들은 물건을 팔 지역을 물색하다 국경을 넘어 평안도 시장이 있는

이북으로 향한다. 바오 무용단(대표 박태영)이 출연해 창작무 ‘부채, 그리다’, 서도민요 ‘풍구소리’로 전통의 신명을 선사한다.

‘제주민요 연곡’도 들을 수 있다. 길을 잘못 든 보부상들이 국토 최남단 탐라국에 도착해 제주도 사투리, 노래를 소개하는 장면이다. 이후 동쪽의 태백산맥 고개를 넘어 강원도로 향하는 장면에서는 동부민요&춤 ‘메나리’가 울려 퍼진다.

끝으로 두 보부상이 저마다의 길을 향하며 예술로 회포를 푸는 ‘팔도 아리랑’, ‘진도북춤’으로 막을 내린다. 소리는 박은비, 이이화가 맡으며 대금(정성훈), 해금(김비주), 타악(김민철·고창길), 가야금(조한)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예락 김보람 대표는 “전국 팔도의 민요, 무용 등을 한꺼번에 즐기는 공연이다”며 “선조들의 일상과 재치가 깃들어 있는 ‘재담’을 듣고 즐기며 공연장에서 무더위를 날려버리시길 바란다”고 했다. 무료 관람. /최류빈 기자 rubi@

# 김정자 수필가 ‘삼모작 씨앗을 뿌리며’ 펴내



수필이라는 장르의 미덕은 삶에 바탕을 둔 진실을 담아낸다는 데 있다. 이는 있음직한 허구의 서사를 그리는 소설이나 감성을 리드미컬하게 형상화하는 시와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다. 흔히 수필을 에세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사람과 자연, 일상의 소재를 다루기 때문이다.

요즘 들어 수필을 쓰는 이들이 점차 늘고 있다. 내면 깊숙이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말들이 그만 큼 많다는 방증일 것이다.

전남여자중·고 총동창회장을 역임했던 김정자 <사진> 전 운암중 교장이 수필집 ‘삼모작 씨앗을 뿌리며’ (月刊文學)을 펴냈다.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 자신을 볼 수 없었던 저자는 글을 씀으로써 자신을 다독이고 스스로를 성찰한다. 저자에 따르면 “과거의 나의 잘못을 여과 없이 들여다보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주는 내가 나와 화해”라는 것이다. 고백하듯 담담한 어조로 풀어내는 글들은 신앙고백 같기도 한편으로 지나온 날을 기록한 ‘일기’ 같기도 하다.

무엇보다 김 작가는 “나의 삶을 비단보자기로 포장하고픈 마음을 억제하고 내가 내 자신을 정직하게 대접하는 마음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열어가며 진솔하게 쓰고 싶다”고 전했다.

작품집 제목을 ‘삼모작 씨앗을 뿌리며’라고 한 데는 저간의 사연이 있다. 일모작은 교육자로 활동했던 시간이며 이모작은 은퇴 후 찬양 율동 전

다사로 국내외의 선교활동을 했던 기간이다. 마지막 삼모작은 수필가로 데뷔해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제8회 세계 한글작가대회 참가한 일 등 작가로서의 새로운 삶을 비유한 것이다.

모두 4부로 구성된 수필집은 문예지에 기고했던 글, 새롭게 쓴 글을 묶었다.

1부 ‘피보나치 꽃잎처럼’은 삶에서 지향하는 주제를 다룬 글, 일상에서 보고 생각하게 된 내용을 담은 글이 주를 이룬다. 2부 ‘팔라우의 꽃’은 국내외 활동을 다루고 있으며 3부 ‘꽃처럼 별처럼’은 다양한 사회생활, 귀농에서 접한 자연과 어우러지는 삶을 담았다.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단상, 어린시절에 대한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글들도 있다. 마지막 4부 ‘예쁜 꽃신’에는 사사로운 기쁨을 주는 일 등을 토대로 한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수필가는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과 막힌 담을 열고 싶은 마음이 꽃봉오리로 맺혀 있는 때 화처럼 독자 앞에 수줍은 모습으로 섰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2025 광주예술의전당 전시 참여하세요

21일까지 작가·미술단체 모집

내년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를 이용할 개인 작가 및 미술단체를 찾는다.

광주예술의전당(전당)이 '2025 광주예술의전당 전시지원 공모'에 참여할 작가 및 미술단체를 모집 중이다. 21일 오후 6시까지 전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시기획서, 작가 약력, 작품 이미지 등이 포함된 포트폴리오를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이번 공모는 실험성, 창의성을 갖춘 작가·미술단체를 지원해 지역 미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

다. 최종 선정되는 작가(단체)는 갤러리(416제곱미터) 무료 대관과 작품 설치, 리플렛 제작 및 와이 드/거리 배너 등 전시홍보물 제작 지원을 받는다.

회화, 조각, 사진, 뉴미디어 등 시각예술 전 분야에서 모집하며 광주에서 활동하는 작가(또는 미술단체) 총 10명(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창단 1년 이상, 단체전 3회 이상 전시 실적이 있어야 하며 개인(작가)은 개인전 3회 이상 필수.

지원자는 광주시 소재 대학에서 미술 관련 분야를 전공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개방형 시민공간에 전시되므로 깨지기 쉬운 작품, 고가의 작품 등은 관리상의 문제로



출품이 제한된다.

결과는 오는 6월 28일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wilo**

##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